

글로벌 리포트

OECD의 지역 웰빙(Regional Well-Being) 측정과 인적자원개발

김문희 주OECD 대한민국 대표부 공사

I. OECD 차원의 삶의 질(웰빙) 측정

OECD는 지난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양적인 면에서 측정된 경제 성장만이 아니라 복지·환경·교육 등 사람들의 삶의 질과 사회적 진보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을 심도 있게 해왔으며, “Better Life Initiative”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관련 대책을 만들어 추진해오고 있다. OECD가 추구하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보다 나은 정책 수립(making better policies for better lives)”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결국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의 ‘삶의 질과 진보(well-being and progress)’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심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특히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와 같은 거시경제 지표들이 일반 사람들이 경험하는 생활 상태에 대한 충분하고,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비판들이 제기되면서 더욱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에 OECD는 사회적 진보를 측정하는 것이 경제 발전과 정책형성에 있어 기본요소로 부각되었다고 보고 공공정책의 핵심은 우리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있다고 주장한다. OECD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적 진보를 위한 삶의 질적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게 된 것이다.

OECD는 사회적 진보를 개인과 가계의 복지 개선과 관련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진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경제 시스템의 기능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다양한 경험과 생활 여건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OECD의 웰빙 및 사회적 진보 측정 프레임워크는 2009년 ‘경제 성과와 사회적 진보 측정을 위한 위원회¹⁾’의 제안에 기초

하고 있으며, 동 프레임워크는 물질적인 여건(material conditions), 삶의 질(quality of life),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OECD는 이들 영역 아래에 11개의 분야²⁾에서 분야별 특성에 따라 1개 내지 4개의 관련 지표들을 통해 웰빙과 사회적 진보를 측정하고 관련 지표의 상대평가 통계에 기초한 국가별 비교 자료를 웹사이트³⁾와 분석 자료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OECD는 이러한 국가수준에서의 웰빙과 사회적 진보를 측정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별 웰빙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하게 되었다. 이는 사람들이 영위하는 하루하루의 일상이 기본적으로 지역 단위에 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국가 전체 차원보다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웰빙 수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배경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사람들은 자신들이 일할 일자리, 그들의 자녀들이 재학할 좋은 학교, 적절한 건강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어느 지역에 살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고,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웰빙 수준 측정 결과를 통해 이러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정책 당국에서는 이들 지역의 웰빙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의 웰빙 증진을 위한 관련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 등에 참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OECD 차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 웰빙 측정 동향 및 지난 달 초에 발표한 OECD 회원국의 지역별 웰빙 수준 측정 결과, 지역 웰빙 측정에서의 교육 및 노동여건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지역 웰빙 증진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정책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CMPEPS)는 2007년 Nicolas Sarkozy 전 프랑스 대통령의 주도로 만들어졌으며,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Joseph E. Stiglitz 등의 사회로 GDP의 복지 측정으로서의 한계 등에 대한 토론 등을 추진했다. 동 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는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2009년 EU Communication의 "GDP and beyond" 프로젝트, 2012년 UN의 "행복 및 복지 관련 결의안" 등의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동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OECD는 위원회 권고 내용에 기초하여 2011년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Better Life Initiative'를 발표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동 위원회 권고에 따라 2013년부터 OECD에 부설된 High-Level Expert Group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HLEG)가 운영 중에 있다.

2) OECD의 'Better Life Initiative'에서 주창한 복지와 사회진보를 측정하는 11개 분야: 소득과 부(income and wealth), 일자리와 임금(jobs and earnings), 주택(housing), 건강(health status),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교육과 스킬(education and skills), 사회적 연계(social connections), 시민참여와 통치(civic engagement and governance), 환경의 질(environmental quality), 개인적인 안전(personal security), 주관적인 복지(subjective well-being), 각 분야는 그 특성에 따라 각각 1개 내지 4개의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3)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 동 사이트에서는 국가 순위를 발표하지 않고 각 분야별 상대 점수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용자들은 각 분야에 대한 가중치를 설정하여 국가 순위를 알아볼 수도 있다.

II. OECD 지역 웰빙 측정 동향 및 분석 결과

OECD는 3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회원국의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 수를 적절하게 나누어 총 362개 지역에 대한 지역 웰빙 수준을 상대 비교할 수 있는 지역 웰빙 웹사이트⁴⁾를 2014년 6월에 개설하였다. 이들 지역은 국가 단위 바로 아래의 행정단위를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미국은 51개 주를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고 룩셈부르크와 에스토니아는 각각 1개 지역 그리고 우리나라는 수도권, 경남권, 경북권, 전라권, 충청권, 강원권, 제주의 7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지역 웰빙 측정 분야 및 지표

지역 웰빙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OECD 웹사이트에서 채택한 지역 웰빙 측정 분야는 위에서 언급한 11개 국가수준의 웰빙 관련 분야 중 9개 분야⁵⁾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각 지역의 분야별 웰빙수준은 0부터 10까지의 상대 점수⁶⁾로 표시하여 제시되고 있다.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 웰빙 수준을 측정하는 9개 분야는 소득, 일자리, 주택, 건강, 교육, 환경, 안전, 시민참여, 서비스 접근성이며, 일자리와 건강분야는 각각 2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7개 분야는 각 1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4) <http://www.oecdregionalwellbeing.org/>. 동 사이트에서 OECD 34개 회원국 362개 지역에 대한 웰빙 수준을 확인할 수 있고,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과 비슷한 웰빙 수준을 지닌 지역뿐만 아니라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웰빙 수준과 나머지 361개 지역의 수준을 비교하여 볼 수도 있다. 또한 2000년대 초반과 근래 자료를 비교하여 추세를 볼 수도 있으며, 각 분야별 국가수준의 평균값으로 국가 간 비교와 더불어 한 국가 내에서 지역별 및 분야별 비교도 가능하다.

5) 금년 상반기 개설한 당초 지역웰빙사이트에서는 주택을 제외한 8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여 회원국의 각 지역별 웰빙 수준을 상대 비교할 수 있었으나, 지난달 주택 분야를 추가하여 현재 총 9개 분야에서 상대 비교 점수를 제시하고 있다.

6) 웰빙 분야별 점수는 지표의 측정단위가 상이하여 정상화 통계처리 과정을 거쳐 0부터 10까지의 상대 점수로 나타내고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되는 웰빙 분야에서 다른 OECD 회원국의 지역들과 비교하여 성과가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 지역 웰빙 측정 분야 및 지표

분야		지표
물질적 여건	소득	• 1인당 가계 가처분 소득(USD 실질구매력평가지수)
	일자리	• 고용률(%) • 실업률(%)
	주택	• 1인당 방 수
삶의 질	건강	• 기대수명(연수) • 연령보정 사망률(천 명당)
	교육	• 노동인구 중 중등교육 이상 이수(%)
	환경	• 공기오염 정도(PM2.5)
	안전	• 자살률(10만 명당)
	시민참여	• 투표참가율(%)
서비스 접근성	• 광대역 접속 가구 비율(%)	

웰빙 측정 분야별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소득은 개인의 삶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필수품과 다른 목적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분야로 개인의 웰빙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삶의 전반적인 만족감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연관되어 있다. 일자리는 소득과 더불어 사람들의 물질적 조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웰빙 영역으로서 개인들의 역량 개발과 건강, 사회적 관계 형성 등 다른 분야의 웰빙 수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웰빙 측정 분야 중 건강은 지역 간 편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기대 수명이 가장 낮은 멕시코는 74.4년, 가장 높은 스위스는 83년으로 약 9년의 격차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유한 지역이 의사 수가 많고 사망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안전 분야도 OECD 지역 간 격차가 큰 편인데, 특히 미국 남부와 북부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며, 교육, 일자리 접근성, 사회적 관계 형성 등 다른 웰빙 분야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은 개인의 스킬 제고, 고용 기회 확대, 건강 증진, 시민참여 확대 등 개인에게 그 혜택이 가장 많이 돌아가는 웰빙 분야이긴 하지만 사회적 혜택도 많은 분야이다. 한편 시민참여는 투표 참가율 지표로 측정하는데 이 분야는 정부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와 정치적 과정에 대한 시민 참여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장 최근에 실시된 국가수준의 선거에서 유권자 중 투표에 직접 참여한 비율로 측정한다.

2. 우리나라 지역별 웰빙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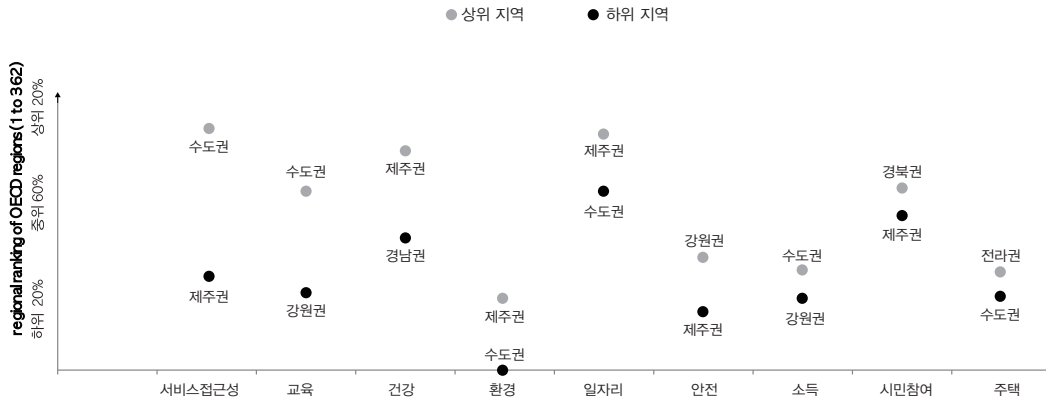
앞에서 언급한 OECD 지역 웰빙 측정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우리나라의 지역별 웰빙 분야의 상대 점수는 다음 <표 2>와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자리와 관련된 분야에서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 및 주택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성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우리나라 지역별 웰빙 상대 점수

지역	교육	일자리	소득	안전	건강	환경	시민참여	서비스 접근성	주택
수도권	8.8	7.8	3.5	7.5	8.8	0.0	7.0	10.0	2.1
경남권	7.7	7.9	3.3	6.5	7.0	3.2	7.4	7.4	2.7
경북권	6.9	8.5	2.9	8.1	7.4	1.2	7.7	7.2	3.2
전라권	6.5	8.6	2.7	7.7	7.5	0.0	7.4	7.4	3.2
충청권	7.1	8.3	2.9	7.1	7.9	0.0	6.8	8.7	2.8
강원권	6.4	7.9	2.6	8.2	7.4	1.3	7.4	7.2	2.9
제주	7.4	9.7	3.2	5.9	9.3	3.7	6.6	6.5	2.6

한편, 2014년 10월 6일 OECD는 위에서 언급한 지역 웰빙 측정 분야를 활용하여 OECD 362개 지역별 웰빙 수준을 상대 비교한 최초의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동 보고서에는 다양한 지역 수준에서의 웰빙 측정을 위한 사례 연구와 더불어 회원국별 지역 웰빙 수준 상대 비교 분석도 포함되어 있다. 동 보고서의 분석 결과에 따른 우리나라의 웰빙 분야별 최상위 및 최하위 지역의 상대 비교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우리나라 지역별 웰빙 분야 상대 비교(2012년 또는 2013년 기준)



출처: Regional Well-Being in OECD Countries: Korea (2014.10월), <http://www.oecd.org/gov/regional-policy/KOR.pdf>.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 웰빙분야 중에서 가장 지역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난 분야는 서비스 접근성 분야이다. 동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5번째로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도권은 OECD 지역 중 상위 5%에 포함되는 반면 제주는 하위 40%에 포함되었다. 반면 일자리와 관련하여서는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이 상위 30%에 포함되는 좋은 성과를 보였다.

또한, 우리나라 지역 상위 20% 및 하위 20%를 대상으로 웰빙 분야의 지표별 성과를 상호 비교해 보면, 노동시장과 관련된 지표에서 우리나라 지역들이 OECD 다른 지역들에 비해 성과가 높은 편이다. 성과가 낮은 하위 20% 지역에서도 실업률이 4% 이하로 OECD 평균의 절반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분야별 웰빙 수준이 높은 지역들은 11개 지표 중 대기오염, 가계 가치분 소득, 개인당 방 수의 3가지 지표를 제외한 8개 지표에서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성과를 보였다. 웰빙 분야별 지표에 대한 상대 비교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우리나라 웰빙 지표의 상위 및 하위 20%⁷⁾ 상대 비교

지표	상위 20%	하위 20%	한국 평균	OECD 평균
• 1인당 가계 가처분 소득	14,184	12,037	13,546	18,907
• 고용률	72.0	65.7	67.5	66.7
• 실업률	2.1	3.7	3.2	8.0
• 1인당 방수	1.5	1.3	1.5	1.8
• 기대수명	82.0	80.3	81.3	79.5
• 연령보정 사망률	7.0	7.9	7.3	8.1
• 노동인구 중 중등교육 이상 이수	85.2	71.4	80.7	74.6
• 공기오염 정도	16.0	27.2	23.8	12.3
• 살인율	1.7	2.7	2.2	4.2
• 투표참가율	77.7	73.9	75.8	67.7
• 광대역 접속 가구 비율	94.6	66.9	94.0	67.2

출처: Regional Well-Being in OECD Countries: Korea(2014,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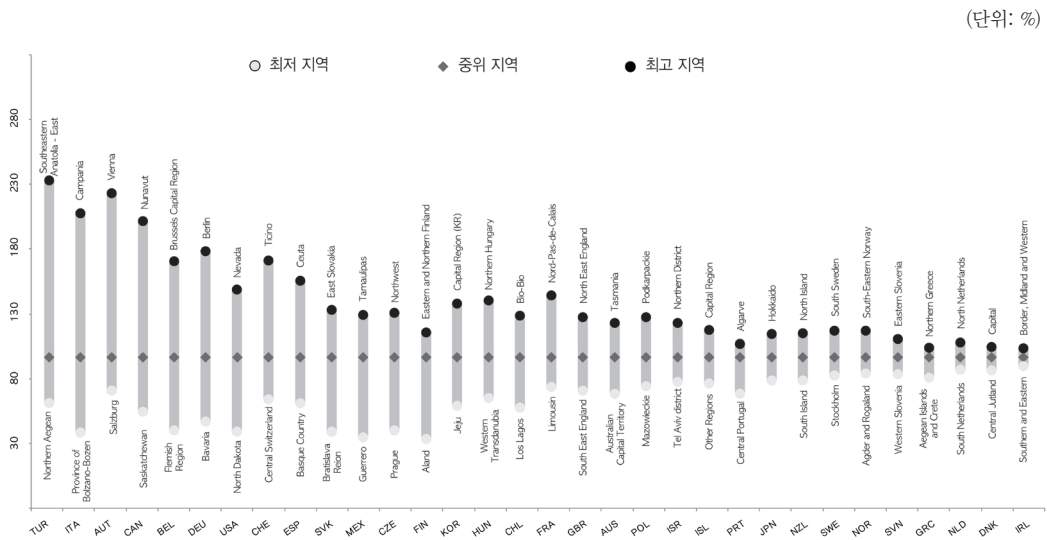
3. 일자리 및 교육 관련 지역 격차

지역 웰빙을 결정하는 분야 중에서 일자리와 관련된 지표는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물질적 조건을 제공하는 것으로 웰빙의 핵심적인 분야이다. 특히, 고용에 대한 불공평한 접근이 지역 간 불평등을 야기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일자리는 지역 웰빙 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일자리는 고용률과 실업률의 두 가지 지표로 측정하는데 고용률은 15~64세 생산가능인구 중 고용 비율로 산정하며, 실업률은 고용자와 실업자를 합친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 비율로 산정한다.

우리나라 지역들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ECD 회원국의 다른 361개 지역에 비해 일자리 관련 지표들의 성과는 높은 편이나, 실업률이 가장 낮은 제주와 가장 높은 수도권 간에는 격차가 많아 일본, 프랑스 등 여러 OECD 회원국들보다 지역 간 격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 상위 및 하위 20%의 통계는 우리나라 지역별 지표에서 상위 20% 및 하위 20%에 해당하는 지역의 평균을 의미한다.

그림 2. OECD 회원국 상위 및 하위 지역별 실업률 비교(2013년 기준)⁸⁾



출처: OECD Regional Well-Being: A user's gu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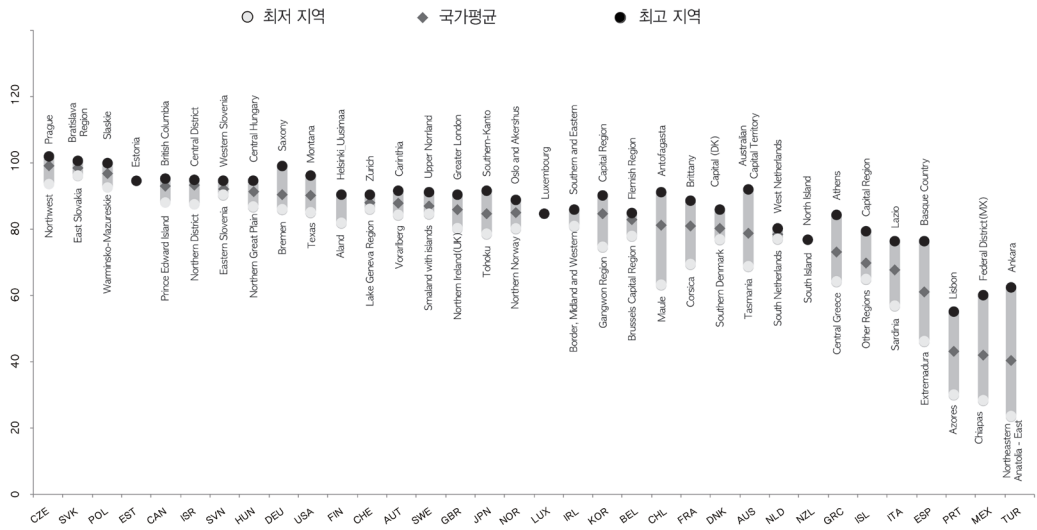
한편, 교육은 개인의 삶에 대한 혜택이 가장 많은 분야일뿐만 아니라 사회적 혜택이 큰 분야로서 지역의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범죄율 감소, 정치적 참여 증대 등의 사회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산업 기반이 튼튼하고, 인적자본이 견고한 지역은 경쟁력이 높아 기업을 끌어들이 수 있는 기반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관련 연구에서도 특정지역의 교육 수준의 격차는 숙련자, 비숙련자를 막론하고 근로자들 간의 임금격차와 생산성 차이를 가져온다고 한다 (Moretti, 2012). 지역 웰빙을 측정하는데 있어 교육 분야의 지표는 15세 이상 노동인구 중 적어도 중등교육 이상을 받은 비율을 사용하고 있는데, 2013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인구의 4분의 3이 적어도 중등교육 이상을 이수하였다. 기초 교육만 받은 4분의 1에 해당하는 인구는 극히 극소수 국가에 제한되어 있다. 예를 들어 터키, 멕시코, 포르투갈, 스페인의 대부분 지역과 이탈리아 일부 지역의 50% 정도만 기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 분야 지역 웰빙의 전체 평균은 OECD 평균보다는 높으나 지역 간 편차가 다소 있어 가장 낮은 지역의 경우

8) 실업률이 가장 낮은 지역과 가장 높은 지역의 값을 국가별 실업률 중간 값의 %로 표시한 것이다.

에는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분야는 서비스 접근성 분야에 이어 우리나라 상위 및 하위 지역간 웰빙 수준 비교에서 격차가 두 번째로 크게 나타난 분야이기도 하다.

그림 3. OECD 회원국 상위 및 하위 교육 분야 지역 웰빙 비교(2013년 기준)⁹⁾

(단위: %)



출처: OECD Regional Well-Being: A user's guide⁴.

4. 인적자원개발 정책에 주는 시사점

OECD가 제시하는 웰빙 측정을 위한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개인의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요건과 삶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 그리고 이러한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여건들이 필요하다. OECD에서 제시한 이러한 지역 웰빙을 결정하는 분야 중에서도 비교적 단기간에 그리고 정책적 의지를 통해 웰빙 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일자리 관련 내용들이다. 특히, 사람들이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내고 인생의 많은 시간을 직장에 투입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있다는 것은 자신의 역량 개발, 교육 기회, 사회적 관계 형성, 자존감 등 다른 웰빙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괜찮은 일자리를 찾고 유지하는 것은

8) 노동인구 중 중등교육 이상 이수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을 국가 평균과 함께 표시하였다.

사람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사람들의 일자리 찾기와 유지를 돕고 고용가능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 정책이 요구된다.

OECD에서는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복지 수준의 변화뿐만 아니라 복지에 있어서 남녀 간의 격차, 고용의 질과 일터에서의 복지, 복지의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들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일자리와 관련하여 OECD가 지난 9월 발표한 「OECD 고용전망 2014」에서도 밝혔듯이 OECD 국가 중 실업률이 가장 낮은 국가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 규모가 커 고용률, 특히 여성과 청년층의 고용률이 낮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¹⁰⁾ 이번 2014년 OECD 고용전망 보고서에서는 일자리의 질에 대한 분석도 실었는데, 일자리의 질은 소득의 질, 노동시장의 안정성, 근로 환경의 질¹¹⁾로 측정하였다. 결국 노동시장의 성과를 평가하거나 노동정책이나 제도의 역할을 평가할 때는 일자리의 양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질에 대한 평가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는 일자리 자체만이 아니라 일자리의 질이 근로자의 복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인데, OECD는 이번 고용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일자리와 근로자의 복지를 관련시키려는 시도를 처음으로 시도하였다.¹²⁾ 따라서 일자리 관련 정책 추진 시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일자리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정책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OECD가 2014년 고용 전망에서도 밝혔듯이 경제 위기에서 가장 불이익을 많이 받는 집단은 청년층, 저숙련 근로자, 임시 근로자이다. 특히, OECD에서는 이들 세 그룹 중에서 저숙련 근로자들이 실업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¹³⁾ 비정규직의 증대 추세도 근로자들의 스킬 개발의 기회를 축소함으로써 전반적인 인적자본의 하락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이에 대해 직업훈련 대상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근로자들이 직업에서 요

10) 우리나라의 금년도 고용률은 지난해에 비해 증가하였고, 특히 여성과 청년층 고용률 증가가 전체 고용률 증가 폭의 거의 두 배에 달했다. 지난해 전체 고용률은 지난해 64.3%에서 금년도 65%로 상승하였고, 여성은 53.7%에서 54.6%로, 청년층은 23.9%에서 25.2%로 증가하였다.

11) 소득의 질은 평균 소득과 불평등 정도, 노동시장의 안정성은 실직위험, 실직기간,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등 근로 환경의 질은 일과 관련된 시간적 압박, 작업장 위험요소, 일의 자율성과 학습기회, 작업장 내에서의 관계성 등으로 측정했다.

12) 동 보고서는 일자리의 질과 관련하여 OECD 회원국들을 우수 그룹, 보통 그룹, 미흡 그룹의 3개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캐나다, 프랑스, 일본, 영국, 미국 등과 같이 보통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OECD가 실시한 성인대상 직업역량평가 결과에 따르면 저숙련근로자의 거의 4명 중 1명은 일터에서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극복할 수단이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구되는 것을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섹터 간 이동이 용이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정책을 시행하고,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다.

어떤 스킬과 요소들을 가지는 것이 개인의 고용 상태와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느냐도 중요한 문제이다. OECD 고용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인 초기에는 특정 분야의 스킬을 획득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반적인 스킬을 갖는 것이 임금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물론 청년층에는 교육수준이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변수이나 경험 또한 청년층 임금 격차를 설명하는 주요 변수 중의 하나이다. 또한, 청년층이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비율은 낮으나 학업을 완료하기 이전에 직장 경험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직업을 갖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일자리 확보에 있어 직장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정책 담당자들은 일-학습 병행 프로그램의 혜택을 파악하여 좋은 정책사례들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결국 고용률 등 일자리 관련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용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잘 교육받고 훈련된 노동력은 국가의 사회 및 경제적 웰빙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 웰빙 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교육 및 직업훈련을 기본으로하여 보다 넓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이 중요하다. 먼저 교육은 개인의 지식, 스킬 및 역량을 키우게 하고 직업을 찾아서 필요한 소득을 획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볼 때 고등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83%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반면 중등교육까지만 이수한 사람은 55%만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생애 소득의 경우에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경우 25~34세까지의 인구를 보면 98%¹⁴⁾가 중등교육 이상의 교육수준을 보여주고 있어, 이는 미래의 우리나라 전체 노동력의 교육수준이 점점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고용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청·장년층의 전반적인 교육수준이 아니라 지역차원에서의 시장수요를 반영한 교육훈련 분야 설정, 일-학습 병행을 통한 현장과의 연계성 강화, 청년층·비숙

9) 이는 OECD 평균인 82%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다.

연근로자·여성 등 고용 취약 계층에 세밀한 분석 등을 통해 고용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맞춤형 인적자원개발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차원에서 주민들의 복지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관련 통계의 수집과 분석 역시 중요한 과제이며, 지역 인적자원개발의 핵심 의제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러한 주민 복지의 진단과 우선순위에 따른 적절한 정책 대안의 마련이다. 무엇보다 웰빙 수준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에서의 교육 및 일자리 관련 지표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측정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어떻게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OECD 지역 웰빙 지표들을 참조하되 우리나라 지역들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및 일자리 관련 지표 개발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Moretti, E.(2012). The New Geography of Jobs, Houghton Mifflin Harcourt.
- OECD(2011).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 OECD(2014). OECD Employment Outlook 2014, OECD Publishing.
- OECD(2014). OECD Regional Well-Being: A user's guide,
<http://www.oecdregionalwellbeing.org/assets/downloads/Regional-Well-Being-User-Guide.pdf>.
- _____. How's life in your region? Measuring regional and local well-being for policy making, OECD Publishing.
- _____. OECD Regional Outlook – Regions and Cities: where policies and people meet, OECD Publishing.
- _____. Regional Well-Being in OECD Countries: Korea,
<http://www.oecd.org/gov/regional-policy/KOR.pdf>.